기분 따라 껴안는 '부처님 쿠션'

여래 · 명왕 5가지 조합으로… 2월 말 발매

자기 기분에 따라 껴안을 수 있는 다양한 부처님 쿠션이 탄생했다. 2월 3일 일본의 '시사통신' 'PR타임즈' 등은 새로 개발된 불교상품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3일 일본의 사찰문화상품 전문개발업체인 '페리시모 오테라부'는 '껴안는 부처님 쿠션'을 제작해 공개했다. 쿠션은 안과 밖을 뒤집어 두 가지 모습의 부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시판되는 쿠션엔 각각 비로자나불, 아촉불, 보생불, 무량수불, 불공성취불의 다섯 부처님과 그 변화신(變化身)인 부동명왕, 항삼세명왕, 군다리명왕, 대위덕명왕, 금강야차명왕의 모습이 각각 그려졌다. 두 부처님이 한 쌍으로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쿠션에 그려진 그림들은 수제인형 제작으로 유명한 아마노 코유 스님의 작품으로, 코유 스님은 특유의 둥글고 천진한 모습으로 10가지 부처님을 그려냈다. 코유 스님은 "밀교에서는 중생들을 자비롭게 이끄는 여래의 모습과 중생의 악업을 단호히 쳐내고 번뇌를 제압하기 위한 분노한 명왕의 모습이 있다"고 각 그림을 설명했다.

스님은 사람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여래와 명왕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



앞뒤로 바꾸어 껴안을 수 있는 부처님 쿠션. 사진출처=페리시모 공식블로그

고 말하면서 "부처님의 두 모습은 사람에게 있는 정(靜)과 동(動)의 양면에 모두 적합하다. 편안함과 치유를 원할 때엔 여래를, 활동적이고 극복하는 힘을 원할 땐 명왕"이라며 쿠션의 조합을 설명했다.

제작사인 페리시모 측은 "쿠션의 기획회의에서 '곁에 두어 번뜩하고, 안아서 위안이 되는 쿠션'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했다. 여래와 명왕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결과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전통적인 불단을 모시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곁에 두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처님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라고 부처님 쿠션의 장점을 설명했다. 쿠션은 오는 2월 말부터 발매되며, 한정판으로 1인당 5개 1세트만을 판매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보시, 현금으로 낼 필요 있나요?"

日 사찰 불전함에 결제용 QR코드 설치

박영빈 객원기자

전자결제가 일상화되는 현대사회. 전자화폐로 보시금을 받는 일본사찰이 생겨 화제다. 2월 4일 '후쿠이신문' '야후뉴스' 등은 사찰 불전함에 전자화폐용 QR코드를 설치한 사찰 '쇼온지(照恩寺)'를 특별 보도했다.

일본 후쿠이(福井)현 후쿠이시에 소재한 쇼온지는 15세기에 창건된 고찰. 17대 주지인 아사쿠라 쿄센(朝倉行宣) 스님은 지난 1일부터 본당의 불전함에 결제용 QR코드를 설치했다. 참배객의 보시금을 전자화폐로 받기 위해서다. 쿄센 스님은 "불교도 시대에 대응하기를 요구받는다"며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평소 진행해온 '테크노 법회'의 영향으로 QR코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쿄센 스님은 출가 전 DJ와 조명기사로 일했던 실력을 살려 지난 2016년부터 법회와 테크노 음악을 융합한 '테크노 법회'를 진행, 국내외의 반향을 이끌어냈다. 2018년에는 싱어송라이터인 다른 스님과 함께 미니 앨범도 발표했다.

쿄센 스님은 "앨범CD를 사찰에서 판매하면서 처음 전자화폐를 도입했다. 손쉽게 결제가 되는 것을 보고 '보시에도 좋은 방법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곧장 다른 사찰이나 종교시설에서도 전자화폐를 사용하는지 조사했다.

15세기 창건 후쿠이시 쇼온지
시대변화 따라 전자화폐 도입
보시 부적합 비판여론 있지만
참배객들에겐 편리함 이끌어

그 결과 후쿠이현 내에는 없지만, 다른 도시나 현에서는 일부 도입한 사례를 찾았다. 스님은 "보통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찰이나 신사, 혹은 방범대책으로 전자화폐를 도입한 사례가 많았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 조사 당시 쇼온지가 재적한 정토진종에서도 "아직 후쿠이현 내 사찰가운데 전자



불전함에 놓인 결제용 QR코드를 소개하는 쿄센 스님. 사진출처=후쿠이신문

화폐를 보시금에 도입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해 선진적인 방안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일본 내 거대 불교단체인 '교토불교회'에서는 "불전이나 보시금 등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전이 신용거래로 오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교토불교회는 "불전과 보시를 신용거래로 받는 것은 보시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했다.

교토불교회 이사장 아리마 라이테츠 스님은 "보시금은 영리사업의 수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단지 편리성만을 좇아 신용거래를 사용한다면, 신자와 사찰간의 가시적인 연계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쿄센 스님은 이에 대해 "현물을 보시물로 받아 사찰의 의식주를 지탱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다. 새로 등장한 화폐가 보시에 어울리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님은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에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실제 쇼온지 신도들과 참배객 사이에선 QR코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찰을 참배한 중년의 신도는 "보시금으로 적당한 잔돈이나 내고 싶은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편리하다"며 부담 없이 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배객도 "단지 절을 보러 왔는데 QR코드가 있어서 가볍게 보시금을 낼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했다.

"종정 추대 사양" 닝마파 종정 공석

후보자 모두 거절, 6대 본산 중심 운영 전망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종단 중 하나인 닝마(Nyingma)파의 종정이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됐다. 지난 2월 5일, 불교전문 인터넷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당초 추대된 스님들이 끝내 추대를 사양했다고 보도했다.

2월 3일 인도 바라나시에서 열린 국제 닝마파 위원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랜 숙고와 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닝마파의 종정을 공석으로 두게 됐다"고 공지했다.

닝마파는 지금까지 6대 본산의 방장들과 원로 출가자들의 협의로 종정을 추대, 3년간의 임기제로 선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 종정에 착좌했던 '까톡 게체 린뽀체'가 그해 11월말 갑작스런 사고로 입적한 후 약 1년 넘게 종정이 공석으로 유지됐다.

3일 바라나시에서 열린 닝마파 총회에서 6대 본산의 방장들은 "까톡 게체 린뽀체께서 입적하신 직후 6대 본산 중 한곳인 족첸사원의 방장께 종정의 자리를 맡아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고사하셨다"고 밝혔다.

현지 티베트 소식통에 따르면 족첸사원의 방장스님은 "종정을 선출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닝마파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닝마파에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종정을 선출하지 않고, 6대 본산이 연합한 형태로 종단을 유지해왔다.

한편 현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며 새롭게 추대된 '세첸 랍잠 린뽀체' 역시 종정 자리를 사양했다. 1967년생으로 원로승려들 중 젊은 피에 속하는 세첸 랍잠 린뽀체는 1980년대 초부터 네팔의 세첸사원을 이끌며 세계각지에 센터를 건립, 전법활동에 최선을 뛰는 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추대된 2인의 후보자가 모두 종정을 사양하면서 국제 닝마파 위원회는 종정 없이 종단을 이끌어 나가자는 본산 방장들의 제안을 이행하는 데 동의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 물결'

방콕시내서 추모법회 열려
수천 명 인파 참석해 추모
보호경 독송… 가피 축원

2월 8일 태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위한 추모법회가 방콕에서 열렸다.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시에서 탈영병이 벌인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10일 'BBC' '로이터 통신' 등의 외신들은 총기난사 사건과 희생자 추모법회를 보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 사건에서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57명이 부상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망자에는 태국경찰과 군이 사살한 탈영병 짜끄라판 톰마가 포함됐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 사건의 동기는 범인의 지휘관 친척이 연루된 주택 매매와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짜끄라판 톰마는 부대 지휘관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무기와 탄약, 군용 차량을 훔쳐 불교사원으로 이동했다. 이동중에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쏴 왓



태국 나콘 라차시마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스님이 보호경을 독송한 물을 발우에 담아 대중에게 뿌리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파사타 루암 사원에서 경찰관 2명을 포함한 9명을 살해했다. 또 톰마는 상좌부불교의 명절인 '만불절' 연휴를 즐기는 쇼핑객들로 붐비는 대형 쇼핑몰 '터미널 21 코라트' 입구에서 총기 난사 후 진입했다. 범인은 17시간이 지난 9일 오전 9시경 쇼핑몰 안에서 군경에 사살됐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쇼핑몰에는 현지 한국인 선교사 자녀 2명과 그 지인 등 한국인 8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탈출했다.

최초 사건 피해자인 왓 파사타 루암 사원의 아몬랏 스님은 "모두 만불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군용 차량이 사원 안으로 들어와 길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의 시야 안에 있는 누구든, 어떤 차량이든, 모두 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루앙 피클라 스님은 "총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사원 앞 도로를 쓸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탄 학생에게 총을 난사하는 군인을 봤다. 범인은 이미 죽은 학생의 머리에 수많은 총탄을 난사했다. 그리곤 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를 쏴 도주를 막았다"고 전했다.

방콕시내에서 열린 추모법회에는 수천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각기 손에 양초와 흰 꽃을 든 참석자들은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팔리어로 된 불경을 독송했다. 스님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이 마음속에 가진 자비를 잃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추모법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아무런 감정 없이,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희생됐다는 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예불과 법문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예불을 마친 스님들의 발아래에 초와 꽃을 공양 올리며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보호를 바라는 보호경(Paritta)을 독송하고, 물을 발우에 담아 참가자들에게 뿌리며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 가피가 있기를 축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특수교육기관

보경사
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인모집

*개 강 2020년 3월 3일
*교육과정 불공의식, 재의식(각종시식, 영반, 시다림), 불전사물, 바라작법, 법음범패 등
*강 주 대광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전수자)
*대 상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범종단스님, 재가불자
*구비서류 입학원서 / 승적증명서 / 반명함판사진 2매
*모집기간 2020년 2월 29일까지 (수시모집)
*입학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종무소 교무처
교학처 010-4530-7444
교무처 010-9370-3734
강주스님 010-4783-0077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제11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 6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1년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개인지도,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무파사 불교대학원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사진 ……3매
→ 개강일시 : 2020년 3월 7일(토) 오후2시
→ 수 업 : 매주 토요일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주 소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
→ 신청문의 :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불교대학원(학장)